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월) 14:00 배포 2026. 11. 2.(월) 14:00

한국과 베트남, 문화산업 분야 협력 강화 논의

- 11. 2. 베트남에서 김영수 제1차관, 베트남 문화부 차관과 면담
- '27년 베트남 에이펙 개최 시, 경주 에이펙에서 처음 개최한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추진, 성공 개최 위한 협력 약속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11월 2일(월) 오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베트남 응우엔 후이 중(Nguyen Huy Dung)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나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양국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양국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문화산업 분야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과의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정부 측의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저작권 제도 개선과 보호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응우엔 후이 중 차관은 대한민국은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산업 선도 국가인 만큼 베트남과 한국 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경험 교류가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하 에이펙)'에서 처음 개최했던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베트남 측이 2027년 에이펙에서도 이어 추진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문화산업고위급대화'가 문화산업 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2027년 에이펙 문화산업고위급대화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해외문화거점지원팀	책임자	과장	김동은 (044-203-3311)
		담당자	서기관	최대경 (044-203-33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